

'청렴 1번지 장수' 도약 총력

군, 제1차 반부패·청렴 회의 개최… 종합청렴도 등급 향상 방안 등 논의

장수군이 조직 내 청렴도 향상과 공직사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24일 군청 회의실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2023년 제1차 반부패 청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훈식 군수, 이종훈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호 기획조정실장이 2022년 장수군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분석과 2023년 장수군 반부패 청렴 시책을 보고한 후 올해 종합청렴도 등급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장수군은 '청렴실천! 부패제로!, 행복 장수!'라는 비전 아래 '청렴도 한등급 UP! 청렴 우수 기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청렴문화 정착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효과적인 부패방지 체계 구축 등 3가지의 청렴 중점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부과제는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21개 과제로



장수군은 24일 군청 회의실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2023년 제1차 반부패 청렴 회의를 개최했다.

구체화해 청렴한 장수군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2023년을 장수군이 청렴 1번지로 우뚝 설 수 있는 원년으로 삼고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향상

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직원과 군민 모두가 신뢰하는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도내(무주)산 가공품 급식 참여업체 모집

5월 4일까지 신청… 지역내 유치원·초·중·고교에 공급

무주군이 지역 내 학생들에게 도내(무주)산 유탄으로 만든 가공품을 급식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 선정한다. 현재 지역내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6개소이며, 품목은 사과즙, 도자기청, 누룽지, 뼙갈비 등으로 11개 품목이다.

대상은 주재료를 도내(무주)산 농축산물로 사용하고, 안전성과 원료생산 정보 확인이 가능한 무주군 소재 가공품 제조업체 및 농가다. 무주군에 본사 제조공장을 두고 가공품 공급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품목은 도내산 원재료로 만든 장류, 기름류, 음료류, 젤류, 엿류 등이며, 공급은 지역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학교에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오는 5월 4일까지 신청서 및 가공품 유통화보 내에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무주군 농업지원과 푸드플랜팅에 접수하면 된다.

무주군 학교급식 지원협의체를 통한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거쳐 원재료 수급내역, 가공시설 위생상태, 배상보험 및 식품관련 정보, 우수 품질인증 여부 등을 살펴 관내 학생들이 먹는

만큼 다양면으로 확인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농업지원과 이은창 과장은 "이번 업체 선정을 통해 무주군 학생들에게 무주의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가 되고, 관내 공급업체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식품안전과 농가소득을 모두 얻게 되면서 무주군 전체에 선순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문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푸드플랜팅(063-320-2780)으로 문의를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일자리센터-전북권 대학 간 협약 체결

인재 양성·취업지원 협력

진안군일자리센터는 전북권 대학 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층 진로 선택 및 취업지원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24일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우석대학교 학생취업처, 원광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전

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센터와 협약을 체결했다.

진안사통팔달센터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각 기업의 채용경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학생 등 청년층의 진로선택과 취·창업지원에 관한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고용활성화를 위한 상호 지원체계 확대 △고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적극적인 취업지원 사업 △진로선택 및 구직기술향상을 위한 직업지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정보 공유 △기타 청장년층 취업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무주군, 군비 추가 확보로 최대 70만원까지 지급

무주군이 올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덜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침 및 카드수수료 변경으로 지원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만 원 감소한 30만 원이었으나 군비를 추가 확보해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한다.

최인홍 군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군비를 추가 확보해 당초 대비 40만 원을 증액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었으면 하고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手段를 통해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고등학생 대상 인터넷 강의 지원 추진

무주군이 지역 내 고 2·3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 지원 사업을 펼친다. 다양한 학습 콘텐츠 제공과 연간 수강권 제공으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를 고 2·3재학생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 지원을 통한 학습 능력 향상으로 우수 대학 진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에 참여할 학생들을 선별한다.

군은 학생 인터넷 강의 지원 사업을 위한 군비 4천75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희망학생은 24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각 고등학교에 신청하면 되며, 군은 신청자를 취합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강권을 학생들에게 배부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유명 인터넷 강의 운리인 프리페스권(전과목 이용가능)을 구입 후 수강기간(5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모든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개별주택가격 적정성 심의·원안 가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진안군은 24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진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종필 부군수는 비롯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 11명과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2명,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개별주택 9,059호에 대한 가격 적정성 여부를 조정하는 원안 가결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보다 2.46% 하락했으며

이는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날 원안 가결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진안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림리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본격 운영

장수군은 24일 참가자 5명과 마을 운영자, 행정 담당자와의 만남을 가지며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시작을 알렸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10월 29일까지 6개월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참가자 5명이 계복면 문성마을에 위치한 체험휴양마을에서 거주하며 영농체험, 일자리 및 주거지 탐색, 지역민과의 교류 등을 통해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귀농·귀촌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참가자들에게 연수비로 인당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운영자에게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체류기간 동안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구선서 농업정책과장은 "장수로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에도 성공적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